

요한 10,11-18 (2024/4/21, 부활 제 4 주일)

디지털 시대로 접어든 우리 사회가 예전과 달라진 점은 '편 가르기'가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나 검색 엔진을 사용하다 보면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계속 비슷한 내용만을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고양이 관련 영상을 몇 개를 시청하면, 그 다음부터는 강아지나 다른 동물이 아닌 고양이에 관련된 정보들만 그의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생각이 한쪽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또한 나와 유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만' 소통하게 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겐 적대적이 됩니다. '확증 편향'이 넘치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서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요한 10, 16)라고 말씀하시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원래 우리 안에 있던 양들과 다른 곳에서 데려오신 양들이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혹시 편을 가르고, 텃세를 부리고, 서로 배척하게 되는 건 아닐까? 예수님께서서는 그럼에도 양들을 통합하고 싶어 하십니다. 각기 다른 삶을 살다가 한데 모인 양들이 새롭게 한 우리 안에서 한 목자를 따르며 살아가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좀 더 개방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나눠야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해야 합니다. 설령 의견 차이의 폭이 좁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 존중하며 동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 우리 안에서 한 목자를 따르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의 성화 묵상



<서예희 발레리아, 양속의 땅, 2019년>

수많은 양들과 어우러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양들도, 왼쪽을 향하고 있는 양들도, 앞서서 걷어가는 양들도, 뒤에서 따르고 있는 양들도 모두 예수님과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때론 맨 앞에서 양 무리를 이끄시고, 때론 중간에서 아픈 양은 없나 살피시고, 때론 뒤편에서 뒤쳐지는 양들을 보살피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앞, 뒤, 오른쪽, 왼쪽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데 모여 평화롭게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 생김새의 다름도, 능력의 차이도 예수님 앞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목자 아래서 푸른 풀밭을 거니는 '한' 양 떼입니다.